

“11. 11. 농업인의 날 맞이, 8000kg 쌀 기부”

- 정성스레 키운 우리 쌀, 지역사회에 온정으로 이어지다 -



<사진설명> 한국농어촌공사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사회복지시설에 8000kg의 쌀을 기부하였다.

한국농어촌공사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나주 쌀 400포대(20kg 기준)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지부를 통해 광주·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.

공사는 5년여 전부터 꾸준히 나주 대표 농산물인 쌀을 구매해 지역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‘나주 쌀 기부 프로젝트’로 쌀 소비 촉진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, 현재까지 누적 지원한 총규모는 약 42만 톤(2,128포대)에 달한다. 특히, 지역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기부할 쌀을 구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.

이병호 사장은 “올 한 해 농업인의 정성으로 수확한 쌀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다.”라며 “앞으로도 공사는 우리 농어업·농어촌의 발전과 함께,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공동체가 더불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.”라고 전했다.

이 밖에도, 공사는 매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임직원들이 직접 김치를 담가 기부하는 ‘사랑의 김치 나눔’ 행사를 전개하며, 취약계층과 농업인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

담당 부서	총무인사처 총무부	책임자	부 장	김현석 (061-338-6041)
		담당자	대 리	우종명 (061-338-6047)